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1)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1 (2)96사단 주둔지-(10)검은오름  
전쟁이 남긴 살벌진 풍경 간직

입력 : 2007. 06.21. 00:00:00



▲탐사팀이 갯도안으로 깊숙히 들어서자 낮선 침입자에 놀란 박쥐떼들이 몰려 나오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알오름 지하 관통한 갯도 발견

### 빠져 죽은 소뼈만 앙상히 남아

시커먼 어둠 속 저편에서 박쥐떼가 뿔칠 듯 달려든다. 평온한 서식처를 침범당했다고 여겼을 까. 갯도 안쪽에서부터 낮선 침입자를 향해 돌진하는 기세가 사뭇 사납다. 쏟아지듯 몰려나오는 무리 앞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다. 박쥐들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 갈 때마다 쉬익 쉬익 파열음을 낸다. 서늘한 찬바람이 땀으로 범벅된 얼굴에 와 닿는다.

떼로 달려드는 박쥐들을 뚫고 완전 낮은 포복으로 전진하길 수 십 미터. 송이층이 무너진 뒤로 무언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보인다. 순간 섬찟해지는 느낌. 유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랜턴 불빛에 드러난 그것은 뼈만 남은 소의 잔해였다. 갯도 안에 빠진 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죽어있었던 것이다. 소는 제풀에 쓰러진 채 최후를 맞이한 듯 했다. 한 개체분이 이탈 되지 않고 고스란히 놓여있었다. 뼈의 표면에는 곰팡이가 슬어있는 등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소가 빠진 뒤 오래 경과했음을 알 수 있다.

취재팀이 최근 세 차례에 걸친 검은오름 탐사에서 처음 발견한 갯도진지는 그렇게 전쟁이 남긴 살벌진 풍경으로 다가섰다.

제주시 소재 검은오름(연동 산 110번지 일대·표고 438m)의 갯도는 알오름 능선을 관통하고 있다. 알오름은 정상부에서 보면 동쪽 아래 나지막히 펼쳐져 있다. 갯도 입구는 오름능선의 대척점을 이루는 동쪽과 남서방향으로 나 있다. 오름 능선을 관통한 그 길이는 80여m 정도 된다.

갯도는 동쪽 입구를 따라 진입하면 낮은 포복으로 30~40m 정도 기어가야 한다. 갯도 바깥에서 토사가 밀려들면서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처음 진입부의 바닥과 천장 높이는 겨우 50cm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하지만 중간지점은 원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높이가 220cm, 폭이 140cm에 이른다. 원래의 바닥 위로 약 150cm 정도 토사가 쌓인 것이다.

갯도 끝부분은 입구가 두 개인 와이(Y)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쪽 입구는 막혀있는 상태였다. 바로 소가 빠진 입구다. 사람들이 일부러 막아버린 것이다. 동쪽방향의 갯도 입구 주변에는 함몰흔적 2곳이 확인된다.

검은오름 정상부에서는 남쪽인 한라산 방향으로 입구가 함몰된 갯도가 확인된다. 노리손이오름과 그 뒤로 일본군 제58군사령부가 자리했던 여승생오름이 달려들 듯 가까이 있다.

북쪽으로는 상여오름(염통약)과 광이오름, 남조봉, 민오름이 보인다. 제주시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이들 오름군은 '주저항진지' 라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정뜨르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군이 대규모 갯도를 구축하고 병력을 집중배치했던 지역이다. 그 사이는 광활한 개활지다. 개활지에는 '도노미'라 불린 정실마을이 자리한다. 도노미 대 병력과 포병부대, 대전차부대 등이 주둔했던 것으로



▲검은오름의 알오름을 관통한 갯도 입구(위)와 갯도안에 빠진 채 뼈만 앙상히 남은 소 잔해를 확인하는 탐사팀 모습(가운데). 토사가 밀려들어 바닥과 천장 사이가 좁아진 갯도내부 모습(아래).

일대에는 일본군 96사단 예하의 294연대로 알려졌다.

'주저항진지' 라인의 후방에 위치한 검은오름은 이처럼 제주시가지 동쪽으로 사라봉 별도봉 원

당봉이, 서쪽으로는 도두봉까지 조망이 가능한 요지다. 때문에 일본군 역시 이 오름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 하지만 검은오름은 갯도 규모 등으로 볼 때 '주저항진지' 보다는 '위장진지' 등의 성격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시권을 둘러싼 '주저항진지'에 집중되는 미군의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갯도를 구축하고 유사시를 대비했던 것이다. 제주 서남부가 그렇듯이 제주시 지역의 중산간 일대도 일본군의 전쟁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민을 비롯 육지부 민간인들과 소 등 짐승들까지 일본군이 쳐놓은 덫에 걸려 신음하던 역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특별취재팀= 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